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43호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 편집장 김나현

hufspress.net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심층] 》 3면
21대 총선, 대학사회의 기대와 우려

[심층] 》 5면
끝이 안 보이는 원격수업, 아쉬움의 연속

[사회문화] 》 8면
배달의민족, 과연 우리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인물] 》 12면
35년의 베테랑 외교관, 서동구 대사

늘어나는 원격강의 기간, 불어나는 학생 주거 부담

이번 달 3일, 우리학교는 원격강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리학교 학생이 주거 상황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은 커졌다. 이미 대면강의를 위해 기숙사에 입사하거나 자취방을 구해놨지만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 주거 상황에 대한 △우리학교 기숙사의 대처△자취 문제 해결△앞으로의 학생 주거에 대해 알아보자.

▶4면에서 계속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으로 취임해

이번 달 8일,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이 전국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2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날 취임사에서 김 총장은 "대학 자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며 "고등교육의 발전을 능동적으로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대교협은 △대학 노동조합△정부 관계 부처△주요 기업체△총학생회△회원대학 등과도 소통해 다자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

대교협은 △시설△재정△학사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돕는다. 또한 대학 총장의 법정 자율 협의기관 및 교육 공공단체로서 대학 간 상호 협력과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이 밖에도 대교협은 정부가 위탁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고 재정지원책 조성 등을 통해 각 대학을 지원한다. 현재 대교협엔 △국공립대 41개교△사립대 153개교△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6개교 등 4년제 대학 총장 200명이 포함돼 있다. 김 총장은 2022년 4월 7일까지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김 총장은 2014년부터 이번 해까지 우리학교 10 · 11대 총장을 역임 중이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총동문회, 해외 동문 마스크 전달 캠페인 진행해

▲민동석 총동문회장

우리학교 총동문회가 코로나바이러스19 (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동문 마스크 전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달 4일, 총동문회는 마스크 전달을 위한 모금을 시작했으며 이틀 만에 약 10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기부는 한 번에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6일, 미주지역 △워싱턴△뉴욕△로스엔젤레스 동문회에 일부 먼저 전달됐다.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마스크 1500장을 우선 주문한 것이다. 이후에도 동문들의 계속된 기부로 총 1170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 해당 기부금은 △프랑스△독일△스페인△미국 아틀란타 동문회에 각각 마스크 500개를 전달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모금엔 △재직동문교수회△여성동문회△ROTC동문회 등 7개의 단위동문회와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을 비롯한 66명의 동문 및 학교 관계자가 참여했다. 박준형 우리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은 "해외 동문이 우리가 보낸 마스크를 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며 "기부를 통해 단합하는 외대인이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캠페인을 주도한 민동석 우리학교 총동문회장은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는 동문을 더욱 결속해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결속력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개관

이번 달 13일, 증·개축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이 개관했다. 해당 공사는 2018년 10월 14일 시작돼 총 19개월간 진행됐다. 이번 공사로 열람실은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바뀌었다. 이전과 달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유 열람실 6개△그룹 스터디룸△스마트 플라자△카페 라운지 등의 공간으로 학생 복지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3·4층에 위치한 자료실의 대출·반납창구와 정보서비스 창구만 이용이 가능하며 자료실 서가엔 들어갈 수 없다. 도서관 내에

▲서울캠퍼스 도서관 외부 전경

▲서울캠퍼스 도서관 내부 모습

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고 기침 및 발열 증상이 있으면 출입할 수 없다. 또한 입국 후 자가격리 대상자와 우리학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은 이용이 불가하다.

한편 이번 달 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도서관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방송 당시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못해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같은 달 17일 재촬영한 '도서관 미리보기' 영상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영어판과 한글판으로 제작돼 배포됐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코로나19 예방수칙 29개국 언어로 번역한 우리학교 학생들

이번 달 6일,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가 코로나바이러스19(이하 코로나19) 예방수칙 다국어 번역본을 공개했다. 우리학교 재학생과 교수협의회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예방수칙을 △그리스어△폴란드어△체코어 등 양 캠퍼스의 전공언어로 번역한 것이다. 이는 우리학교 유학생을 포함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쉽게 예방수칙을 접하고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잔 취지로 제작됐다. 이번 번역본 작업은 △영어△중국어△일본어 위주로 만들어진 코로나 예방수칙을 이외 다른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잘 이해하지 못한단 소식이 교수협의회에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교수협의회는 우리학교의 다양한 전공언어를 이용한 코로나19 예방수칙 다국어 안내문 제작을 총학생회에 제안했다.

이전에도 우리학교 재학생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다국어로 주요 문건을 번역해 의미 있는 일을 한 바 있다. 그리스어 번역에 참여한 정예린(국제지역·그불 17) 씨는 다른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번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학교 학생만이 할 수 있는 활동이란 점에서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나현(서양어·프랑스어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며 "양 캠퍼스 재학생과 교수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기에 더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중국어 번역본 샘플을 제작한 장은영 우리학교 중국어교육과 교수는 "우리학교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수칙 번역본은 질병관리본부와 협업을 위해 비공개된 상태며 논의 후 공개될 예정이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우리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홍보단 위촉돼

▲한국어문화교육원 홍보단 학생들 (출처: 우리학교 홍보실)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한국어문화교육원(이하 한문원) 홍보단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홍보단은 한문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일본△브라질 국적의 학생들로 구성됐다. 이는 재학생이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족됐다.

이들은 한문원의 △교육△행사△문화체험 등의 정보를 다양한 SNS를 활용해 홍보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역사와 문화를 분석한 홍보 콘텐츠를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외국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SNS를 통해 공유한다.

이동규 한문원 홍보담당자는 "학생들이 홍보단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보단에 참여한 팡조이 씨는 "한문원에서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며 소감을 말했다. 이 밖에 유우라 씨는 "홍보단으로써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모바일 ID·도서관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통합

우리학교 학술정보팀이 모바일 ID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도서관 앱을 '한국외대 모바일 ID 앱'으로 통합했다. 이에 하나의 앱으로 도서관 출입과 자료 이용이 가능해졌다. 기존 도서관 앱은 변화된 도서관 시스템 기능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또한 NFC* 등 최근 새롭게 도입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단 불편함이 있었다. 학술정보팀은 "웹 환경 및 정보보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두 개의 앱을 하나로 제작 및 통합했다"고 밝혔다.

재학생은 통합된 앱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 ID로 모바일 ID와 도서관 홈페이지에 모두 로그인할 수 있다. 실행 속도가 개선되고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는 등 편리함도 더해졌다. 또한 이를 통해 열람실 좌석 배정과 같이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했던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ID 도용 및 남용이 불가하도록 보안도 강화됐다. 그러나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 모바일 ID 시스템도 유지되고 있다. 현재는 도서관 출입과 대출·반납을 할 때만 새로운 앱 이용이 가능하다.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개관된 이후엔 △열람실 좌석 배정△서울캠퍼스 스터디룸 배정△무인화 장비 등도 새로운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앱은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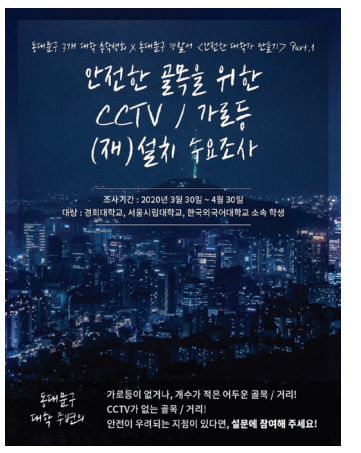
▲통합된 애플리케이션 이용안내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의 약자로 가까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키오스크: 터치스크린과 사운드를 활용해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종합정보안내시스템.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동대문구 경찰서와 함께하는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가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 소재 세 개 대학인 △우리학교△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가 동대문구 경찰서와 협력해 진행된다. 현재 설캠 총학은 동대문구 대학생이 느끼는 안전상의 우려를 해결하고자 '안전한 골목을 위한 CCTV·가로등 설치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이후엔 '자취방 내·대학 주변 상권 불법촬영기기 점검 사업'이 계획돼있다. 이는 우리학교 재학생이 설캠 총학을 통해 자취방 내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신청하면 동대문구 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식이다. 또한 각 대학 총학생회가 대학 주변 상권의 불법촬영기기를 점검하기 위해 주변 상점 화장실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동대문구 경찰서와 공유할 계획이다. 이 설문조사는 다음 학기에도 진행된다.



▲'안전한 대학가 만들기' 사업 포스터 (출처: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한편 이번 사업은 단순히 조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 경찰서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단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영우(LD·LD 16)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인권연대 국장은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지역 경찰서와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활상의 두려움이나 불편이 있으면 언제든 총학생회로 연락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21대 총선, 대학사회의 기대와 우려

이번 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가 치러졌다. 이번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로 2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가 속한 동대문구갑과 용인시갑에선 각각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와 정찬민 미래통합당(이하 미통당) 후보가 당선됐다. 두 국회의원 당선인의 공약과 21대 국회에 우리학교 재학생이 바라는 점을 알아봤다.

◆ 21대 총선 지형 분석

이번 달 15일, 21대 총선이 치러졌다.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에 비해 약 8%p 상승했다. 이는 1992년에 이뤄진 14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난 돌파에 대한 절실함을 표현했단 분석이 우세하다. 한편 26.7%의 높은 사전투표율 또한 화제였다. 이는 유권자가 본선 투표날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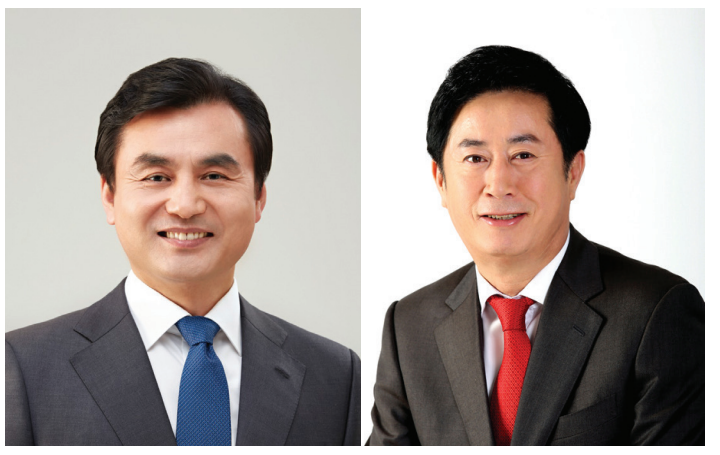
21대 총선에선 '청년'이 화두였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으며 많은 정당이 청년 후보를 내세웠다. 더불어시민당과 정의당은 비례대표 추천 1순위로 청년 후보를 공천했으며 이외의 미래한국당, 민생당 등도 다양한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세웠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청년 후보도 여럿 살펴볼 수 있었다. 우리학교 서울캠퍼스가 속한 동대문구갑 선거구의 경우 오준석 민중당 후보와 이가현 무소속 후보가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동대문구을을 '청년 우선 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 n번방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국회 청원이 빗발치자 각 정당은 디지털 성폭력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단발성 발언에 그치며 실제로 대부분 정당의 10대 공약엔 관련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많은 정당이 여성 후보의 공천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역구 여성의원 수는 20대 국회에 비해 2명 늘어난 수준인 28명에 그쳤다. 이른바 '페미니스트 후보'의 등장도 화제였다. 여성권리 신장을 목표로 창당된 여성의당은 4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다. 서대문구갑의 신지예 후보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들도 여성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활약했다.

위성비례정당 역시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였다. 20대 국회에선 '2019 패스트트랙'을 통해 선거법이 개정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바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군소정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연동하는 제도다. 그러나 21대 총선 선거철이 되자 양대 정당인 미통당과 민주당은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제한을 피해가기 위해 위성비례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대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를 역행시켰단 비판이 이어졌다. 오히려 양당 구도 강화와 지역색 부활이란 부정적 결과를 낳았단 것이다.

◆ 우리학교 지역구 의원 당선인의 공약

안규백 동대문구갑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안 당선인)은 4선 의원으로 동대문구갑 선거구에서만 3번째 당선됐다. 또한 안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안 당선인의 공약 중 우리학교 재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공공도서관 대폭 확충△신이문역·외대앞역 역사 신축△이문고가 지하화△이문1·2동 마을버스 노선 확충△캠퍼스 문화특구 조성 등이다. 실제로 안 당선인은 외대앞역 평면출입로 신설과 이문체육문화센터 완공을 이끌어낸 바 있다. 당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당선인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현재 설계 중인 외대앞역 증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한층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안 당선인은 동대문구의 대학가 일대를 캠퍼스 문화특구로 지정해 △대학△연구기관△지역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공간 확보나 대학가 1인 가구 보호 서비스 확대 및 소통창구 확대 등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안규백(왼쪽)·정찬민(오른쪽) 국회의원 당선인의 모습

한편 안 당선인의 여성·청년 정책과 수변 공원 조성 공약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성·청년 정책엔 △가정폭력 및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여성 범죄예방 환경조성△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 현실화△청년 맞춤형 주거 10만호 공급 등이 포함됐다. 또한 중랑천을 중심으로 여의도 공원 10배 규모의 수변공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안 당선인은 당선 후 블로그를 통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사회적 의식과 성숙도는 차원을 달리 할 것이다"며 "△공정△정의△평등란 화두를 실천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찬민 용인시갑 국회의원 당선인(이하 정 당선인)은 중앙일보 수도권 취재본부장과 7대 용인시장을 지냈으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당선인은 모현읍이 포함된 처인구를 '낙후된 지역'이라 지적하며 지역구 발전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이에 정 당선인은 처인구의 교통 및 도심 인프라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정 당선인은 1호 공약으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가 위치한 모현읍을 지나는 노선인 '처인 1호 전철' 건설을 채택했다. 지난해 우리학교 글캠 40대 총학생회 '리액션'(이하 글캠 총학) 역시 전철추진위원회의 모현읍 전철 추진 사업을 지원한 바 있다. 정 당선인은 용인시장 시절 흥덕역을 유치했던 경험을 들며 자신이 처인 1호 전철을 유치할 역량이 있음을 강조했다. 당선 후 정 당선인은 "시장으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우리학교 학생들이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는 경희대학교·서울시립대학교 총학생회와 연합해 동대문구갑 총선 후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달 10일 게시된 간담회 결과 보고에 따르면 안 당선인에겐 △대학생·청년 정책 제시△대학생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이익 해소△지역구 대학 총학생회와의 원활한 소통△지역주민과 대학 간의 갈등조정 등이 요구됐다. 이에 대해 안 당선인은 "외대 이문동 협의체와 같은 동사무소 중심의 협의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과 대학생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문화특구나 홍릉 바이오센터 건립과 같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고 답했다. 또한 정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앙 정부가 각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달 7일, 정 당선인은 글캠 총학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간담회 당시 박장원(자연·화학 15) 글캠 총학생회장은 △경안천 도시공원 조성△모현읍의 교통시설 증대△모현읍 인프라 개발△모현읍 주변 대학가 주거비용 대책 마련△하수도설비 추가 건설△CCTV·가로등 설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 당선인은 교통 시설과 관련해 "처인 1호 전철 유치 계획엔 모현역이 포함돼있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연계해 외대를 비롯한 용인 관내 대학들과 산학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대학가 주거비용 문제에 대해선 관련 방안의 적극 검토를 약속했다.

김선엽(사회·미디어 19) 씨는 "우리학교 설캠이 위치한 이문동을 포함해 골목상권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어 "대학생으로서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공급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한편 김혜인(통번역·영어 19) 씨는 "여성의 권리가 보다 잘 보장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국회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로운 이슈들 속에서 구성된 21대 국회가 우리학교와 대학사회에 가져다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준성 기자 100leej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2020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접수	2020.4.21.(화) ~ 5.4.(월)	2020.5.25.(월) ~ 6.5.(금)
고사장 발표	5.6.(수) 15:00	6.10.(수) 15:00
면접전형	5.9(토) 10:00 예정	6. 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5.20.(수) 14:00	6.24.(수) 14:00
등록예치금 납부	5.25.(월) ~ 5.29.(금)	6.29.(월) ~ 7.3.(금)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 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별전형은학사과정총평점평균이3.0(4.5만점기준)이상인자
*평균기준:3.0(4.5만점),2.8(4.3만점),2.5(4.0만점),85(100점만점)이상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번역학과
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문학 학과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제출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1) 입학원서 1부(원서작성사이트에서 작성하여 출력)
2) 연구계획서 1부(원서사이트 또는 KFL대학원 홈페이지 다운 가능)
3)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1부(원본)
4) 재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원본)
– 편입생은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5) 학력조회동의서 1부(원본)
6) 가족관계증명서 및 호구부(외국인 학생만 해당, 공증 필요)
7) TOPIK 3급 이상 성적표(외국인 학생만 해당)
나. 외국대학 학위취득자
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국내 해당국가대사관 공증서 제출 필요
다. 선택 제출서류
1) 자격증 : 초등/중등 교사 자격증, 한국어교원 자격증 가산점
2) TOPIK(한국어능력검증시험) 성적표(6급 이상) 가산점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7.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8. 기타사항
가. 재학생 성적우수, 외국인, 동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혜택
나. 최소 3학기로 졸업 가능(학업 우수자)
다. 한국어 교육 및 번역 실무전문가 양성 과정
라. 졸업시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외한과), 한국어번역과정 이수증명서 수여(번역학과)

9.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gskfl.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10.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학과
TEL. 02-2173-3982~3 FAX. 02-2173-3969
(우)024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한국외대 KFL대학원 교학처(대학원 106-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늘어나는 원격강의 기간, 불어나는 학생 주거 부담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해 우리학교 재학생들의 주거 상황이 난감해졌다. 학교에 나오기 위해 이미 기숙사에 입사했거나 자취방을 구해놨던 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대면강의로 전환될 시 2주 전에 알리겠단 학교 측의 공지로 인해 기숙사와 자취방에서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학생 주거 상황에 대해 우리학교 기숙사 측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취생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한 학생들의 주거 불안

외대학보는 이번 달 11일부터 15일까지 총 5일간 우리학교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한 주거 불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오프라인 개강이 예정대로 진행될 줄 알고 기숙사와 자취방에 입주했다고 답한 사람은 68%였다. 이중 머물 필요가 없으나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숙사나 자취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76%였다. 또한 89%에 이르는 113명이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해 주거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기숙사 측의 기숙사비 환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공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학생들이 요구한 것으로론 퇴사 후 오프라인 개강 시 입사 우선선발이 있었다.

지난달 21일,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의 데이터 분석센터는 지난해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의 월세 추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와 경희대학교 주변의 원룸 월세는 보증금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과 7월경에 각각 49, 48만 원 정도로 가장 높았고 4월에도 43만 원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지난해 설문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가 성인 4,09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숙사 외의 공간에서 자취하는 대학생 71.1%가 주거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대학보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짐작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엔 △보증금 반환△월세·관리비 인하△지자체의 대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금전적 문제 해결을 호소한 답변이 많았다. 양현주(사회·미디어 19) 씨(이하 양 씨)는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해 자취방이 필요 없지만 이미 계약을 해놔 월세를 내고 있다"며 주거 비용 부담에 대해 호소했다.

한편 이번 달 3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대학가 수업 침해 사례 조사를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참여 학생 6,261명 중 1,920명인 30.7%가 개강 연기에 따른 피해로 주거 불안을 꼽았다. 이후 지난달 6일, 전대넷은 재난 시국 선언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한 주거 불안이 우리학교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대학 학생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심각한 사안임을 의미한다.

◆우리학교 기숙사의 대처와 자취 문제의 해결은?

설캠의 경우 국제학사와 글로벌홀(GLOBAL HALL) 운영팀이 관련 사항을 공지했다. 우선 국제학사는 환불에 관해 지난달 16일 전에 들어온 사생이 이번 달 15일까지 퇴사할 시 기존의 입사비 반환 내규에 따라 50%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입사를 하지 않은 사생에 대해선 전액 환불이 이뤄진다. 그러나 국제학사 운영팀은 오프라인 개강 시 퇴사생 우선선발 요구와 추가 환불 규정에 대해 "이번 달 17일에 학교 측 및 흡스돔 측과 협의를 진행했다"며 "현재 환불 규정 관련해 공지사항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글로벌홀은 현재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기존 방침대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홀 운영팀은 "추후 미입사자 및 기존 사생에 대한 환불지침이 확정될 시 추가 환불 방안을 공지할 예정이다"며 "원격강의 연장으로 인한 환불 규정 변경은 먼저 학교 측에서 논의한 후 기숙사 측에 전달해줘야 명확한 기준을 알려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면강의 전환 후 퇴사생 우선선발에 대해선 국제학사 측과 마찬가지로 "확정된 안이 없다"며 "현재는 기존의 방침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글캠의 흡스돔 운영팀의 경우 국제학사와 마찬가지로 재학생의 입장을 고려한 환불 규정 관련 공지사항을 준비 중이다. 흡스돔 운영팀은 흡스돔 총사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흡스돔 비대위)와 특정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후 시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달 11일, 흡스돔 비대위는 학사장 및 운영팀과 합의해 △미입사생 퇴사 시 전액 환불△사생 퇴사로 인해 발생한 공실 재선발△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 책정 후 차액 환불△재선발 시 이번 학기 사생이었던 학생에게 우선권 제공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흡스돔에 거주 중인 김나현(통번역·영어 19) 씨는 "기숙사 측에서 최대한 신속히 공지를 내줬으면 한다"며 "차액 환불과 퇴사 후 대면강의 전환 시 우선선발에 대해 재학생의 입장을 먼저 배려해줬으면 한다"고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설캠 국제학사의 모습

▲한적한 우리학교 주변 주택가의 모습

▲글캠 흡스돔의 모습

한편 자취방 문제에 대해 양 씨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주도록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며 "앞으로 학교는 원격강의에 대한 공지를 신속히 전달해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요구하는 월세 환불·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원룸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자취방 월세를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들어 임대인에게 감액 요구를 할 순 있지만 현재 법률상으론 월세 반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단 것이다. 설캠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도 "월세 환불 또는 감면을 해달라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건물주의 재량"이라고 답했다. 동대문구청과 용인시청 역시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금전적 지원은 교육부에서 의논한 후에 가능하기에 지금으로선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으로의 학생 주거는?

원격강의 6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재학생은 계속해 주거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기숙사 측에선 명확한 공지를 띄우지 않고 있어 주거 불안에 대한 해결이 불투명하다. 이에 박수민(서양어·이탈리아어 17) 국제학사 사생회장은 "차액 환불, 오프라인 개강 시 퇴사생 우선선발 등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다"며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학교 측 대응에 대해 "오프라인 개강 연기 공지는 물론 이번 원격강의 무기한 연장에 대해서도 전달 과정이 느리다"며 "논의 단계에서부터 기숙사·총사생회 측과 공유하고 협의 과정에서 총사생회 참여를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달 1일, 흡스돔 비대위 측은 최종 논의에 학생위원을 위촉해달란 공문을 글캠 부총장과 기숙사 회계에 결정 권한이 있는 SPC 이사회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17일에 열린 기숙사와 학교 측의 협의에 양 캠퍼스 총사생회는 제외됐다. 이에 강용정(국제지역·아프리카 19) 흡스돔 비대위장(이하 강 전 비대위장)은 "양 캠퍼스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협의가 조속히 진행돼 학생의 주거권과 학습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기숙사가 학생에게 족쇄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답하며 협의에 대해 바람을 드러냈다.

한편 다른 대학에서도 기숙사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이번 해 1학기 전면 원격강의 시행으로 인해 전체 기숙사 입사가 취소됐다. 이어 1학기 기숙사비에 대한 환불은 이번 달 내로 이뤄질 것이며 이전에 사생이 선택했던 2학기·방학 거주 기간은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대학교는 입사일이 연기됨에 따라 기숙사비 및 식비 차액을 환불할 예정이다. 차액 환불은 입사한 기간 외 남은 기간의 1일 사용료를 합산해 책정된다.

한편 자취방 문제에 대한 해결 여부 역시 아직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강의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재학생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건물주의 재량에 학생들의 주거 불안 해결을 맡겨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학교△학생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끝이 안 보이는 원격수업, 아쉬움의 연속

이번 달 3일, 우리학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을 공지했다. 동시에 성적평가방식 변화, 수강취소기간 추가 마련 등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한편 다수의 대학 역시 무기한 연장을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등록금 환불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에 따른 △피해사례△등록금 환불 논의△총학의 요구와 학교 대응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

이번 달 3일, 우리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원격수업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대면수업 전환 시 시작 2주 전에 공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해제되거나 확진자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경우 소규모 강의 및 대면수업이 불가피한 수업부터 대면수업 실시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다. △서울대학교△성균관대학교△한양대학교 등도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되면 원격수업을 종료하고 대면수업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간고사 일정도 변경됐다. 기존 중간고사 기간은 다음 달 6일부터 12일까지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에 따라 중간고사 실시 여부 · 방식에 대한 결정권 모두 교수에게 일임됐다.

◆원격수업 피해사례

이번 달 6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에 원격수업 대책 마련과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대학생 6,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대넷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에 대해 '매우 불만족'이 24.2%, '불만족'이 40.3%였다. 주요 피해사례론 '교수자와의 소통 미비', '계열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수업' 등이 꼽혔다.

우리학교 원격수업은 △Webex, ZOOM 등의 화상회의 프로그램△녹음파일△동영상 등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일부 교수가 시각 자료로 수업을 대체하거나 과거에 녹음 · 촬영했던 강의를 올려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녹음 자료로 수업을 듣고 있는 A 씨는 "웅성대는 소리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수강생이 메일로 문의했으나 변함없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이처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리학교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를 각 학과 · 학부에 전달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회화 · 실험 수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단 문제점도 지적됐다. 손다경(서양어 · 독일어 19) 씨는 "회화 연습량이 줄어 전반적인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며 "학과 수업만으로 전공 외국어 실력을 충분히 키울 수 없을 것 같다"고 불안함을 드러냈다. 이번 학기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엔 약 120개, 글로벌캠퍼스엔 약 140개의 회화 수업이 개설됐다. 그러나 비대면 방식으로 인해 회화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자습으로 대체하는 교수도 있다. 실제로 한 제보에 따르면 일부 학과의 외국인 교수는 수업 대신 자습 후 문제를 풀어 메일로 제출하게 했다.

레지던셜 컬리지(이하 RC)도 코로나19 상황 안전 시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됐다. RC는 글로벌캠퍼스 △경상대학△공과대학△자연과학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기숙사 의무 생활을 통해 영어 몰입교육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공계 학과의 실험 수업 또한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에 따른 실험 수업 대안은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이에 실험 · 실습비를 필수로 내야 하는 이공계 전공생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송정환(자연 · 전자물리 19) 씨는 "실험은 오프라인 개강 이후로 연기돼 현재는 이론 수업만 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중앙대학교는 실험 · 실습 과목의 경우 안전관리 하에 대면수업을 일부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실험 · 실습 과목의 종강일을 7월 10일로 연기했다. 한양대학교는 감염병관리위원회 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험 · 실습 과목의 대면수업을 허용했다.

◆등록금 반환 논의

등록금 반환 논의는 원격수업이 시작된 후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당시엔 단기간의 원격수업이 예상됐고 현행 법령상 등록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는 자율사항이란 이유로 교육부가 대학에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해 일단락됐다. 이후 원격수업이 연장되고 피해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등록금 반환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최근 등록금을 환불해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해 대학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번 달 7일, 교육부와 대교협 간담회에서도 등록금 반환이 언급됐다. 해당 간담회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이하 김 총장)이 대교협 회장으로 취임하며 박백범 교육부 차관과 만난 자리다. 이날 대교협은 등록금 일부 환불에 대한 어려움을 밝혔다. 10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대학들은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수용△원격수업 준비△학교 방역 비용을 지출해 재정이 더 어려워졌단 것이다.

▲원격수업 시행 중인 우리학교 모습

▲전대넷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현장
(출처: 전대넷 페이스북)

대교협은 등록금 반환 대신 생활장려금, 특별장학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용도 제한 해제△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 취소△추가 예산 1,200억 원 배분 등이 담긴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장학금 지급을 위해 이번 해 8,000억여 원이 투입된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예산 활용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어 교육부와 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구성해 등록금 문제를 포함한 대학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 의사를 밝혔을 뿐 지원 여부 · 방식 등이 결정되거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진 않은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만간 사립 · 국공립대학총장협의회 등 다양한 대학 관계단체와 만나 대학과 학생 간의 접점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번 달 13일, 전대넷은 장학금 지급이 아닌 등록금 반환 논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대교협에 성명서를 내보였다. 이후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경제 대책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해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전대넷과 뜻을 같이 하며 별도로 우리학교에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번 달 1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는 요구안 10개를 학교 측에 보냈다. 여기엔 등록금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설캠 총학은 "원격강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등록금 사용 내역 심의 및 일부 반환 논의를 위해 학교 · 학생 간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이하 글캠 총학)은 학교 측의 원격수업 무기한 연장 발표 직후 총장 및 학생인재개발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등록금 환급에 대해 김 총장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특별장학금 등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학교 예산조정팀에 따르면 아직 세부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없다.

◆총학의 요구와 학교의 대응

우리학교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등록금 반환 외에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다.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공통적으로 성적평가방식 전환, 수강신청 정정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설캠 총학은 △수업 인프라 확충△외국어 및 기타 시험 점수 대체 방안 마련△휴학 신청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글캠 총학은 △수강정원 증원△원격수업 종료일 지정△최대 이수 학점 증대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우리학교는 두 가지 사항을 수용했다. 첫째로 이번 학기에 한해 성적평가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했다. 여기서 절대평가란 교 · 강사가 부여 가능한 학점의 최대 비율을 일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수업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단 Pass 또는 Fail로 평가하는 C유형 과목은 기존의 평가방식을 유지한다. 둘째로 2차 수강신청 취소기간을 마련했다. 이에 이번 달 10일, 10시부터 22시까지 수강신청 취소기간이 추가로 부여됐다.

한편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대해선 '수강시간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해 결석한 자는 수강자격을 상실한다'는 학칙에 따라 어렵다고 밝혔다.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대한 요구를 수용한 학교도 있다. 연세대학교는 교과목 선택을 위한 사전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단 총학생회의 주장에 따라 수강신청 정정기간을 추가로 마련했다. 더불어 등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휴학 · 자퇴기간을 지난달 30일에서 이번 달 3일로 연장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강화△대학 전략적 특성화△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 지원 사업을 말한다.

조현수 기자 100hyunx@hufs.ac.kr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HUFS 비정상회담

Deklarasi Kemerdekaan (1 Maret 1919)

기미독립선언서 – 인도네시아어 번역

번역
이연
한국외대
말레이 인도네시아어학과 강사

감수
Tengsoe Tjahjono
수라바야 국립대학교 교수

Kami dengan ini menyatakan kemerdekaan Korea dan kebebasan rakyat Korea. Kami mengumumkan kemerdekaan ini kepada semua negara di dunia untuk mewujudkan prinsip kesetaraan manusia, dan kami juga meneruskannya kepada keturunan kami, sehingga hak-hak berkeadilan rakyat kami untuk mempertahankan diri terlindungi selamanya. Kami mendeklarasikan kemerdekaan ini dengan berdasarkan pada kewibawaan kami yang dimiliki oleh sejarah selama lima ribu tahun lalu dan atas nama dua puluh juta rakyat yang bersatu untuk memastikan kemajuan bangsa kami tetap berkelanjutan. Selain itu, kami mendeklarasikan kemerdekaan ini untuk bergabung dengan gerakan besar yang bertujuan demi rekonstruksi tatanan dunia yang terinspirasi oleh hati nurani umat manusia. Hal ini sesuai dengan perintah Tuhan, kekuatan terbesar pada waktu tersebut, dan manifestasi umum dari prinsip koeksistensi semua umat manusia. Oleh karena itu, tidak ada kata yang mampu menghentikan atau menghalangi hal ini.

Untuk pertama kalinya dalam sejarah selama ribuan tahun, sepanjang sepuluh tahun terakhir rakyat kami telah menderita di bawah penjajahan bangsa asing dan tirani penindasan, yang merupakan peninggalan zaman kuno. Berapa banyak hak asasi kami yang telah dirampas? Berapa banyak kemajuan spiritual kami yang telah dihalangi? Berapa banyak kehormatan dan martabat kami yang telah dilanggar? Kemudian, berapa banyak peluang kami untuk berkontribusi pada kemajuan budaya dunia dengan visi dan kreativitas baru kami yang telah hilang?

Jika kami ingin mengabarkan kepada dunia tentang rasa kesal terhadap masa lalu kami, jika kami ingin membebaskan diri dari penderitaan saat ini, jika kami ingin menghilangkan ancaman masa depan, jika kami ingin menghidupkan kembali budi luhur dan martabat kami yang telah diinjak, jika kami ingin mengembangkan kepribadian individual bangsa, untuk mencegah anak-anak kami dari warisan yang memalukan, tetapi memberikan kebahagian yang sempurna dan abadi kepada anak-cucu kami, maka tugas utama yang harus kami pertama lakukan adalah memastikan kemerdekaan rakyat. Saat ini dua puluh juta hati didedikasikan untuk pencapaian tujuan ini dan perikemanusiaan juga mendukung kami dengan tentara yang bernama keadilan dan senjata yang bernama hukum moral. Maka, tiada halangan yang sangat kuat dapat meruntuhkan kami dan tiada tujuan yang tidak dapat dicapai.

Kami di sini bukan hanya untuk menuduh Jepang atas pelanggarannya terhadap beberapa perjanjian serius yang telah disepakati sejak Perjanjian Persahabatan tahun 1876, atau kami juga di sini bukan untuk menegur Jepang atas kurangnya integritas dan ketidaksetiaannya hanya karena para sarjana dan politisi mereka telah menganggap rakyat kami yang beradab sebagai orang biadab, menghina tradisi serta kebaikan hati rakyat kami dan hanya menikmati kesenangan sebagai penguasa. Pada hakikatnya, kebutuhan mendesak berupa penilaian-diri-sendiri dan inovasi-diri-sendiri tidak memberikan kami waktu untuk menyalahkan bangsa lain. Bagi kami yang harus bekerja dengan keras demi masa kini, tidak ada waktu lagi untuk mengadili apa yang telah berlalu dan pergi. Tugas penting kami saat ini hanya terletak pada reskonstruksi-diri-sendiri dan bukan pada penghancuran bangsa lain. Kami hanya ingin menciptakan takdir baru kami sendiri sesuai dengan perintah hati nurani dan tidak membenci atau menolak bangsa lain dengan emosi sesaat atau dendam atas masa lalu. Tujuan kami adalah untuk memperbaiki dan mereformasi keadaan yang tidak wajar, tidak logis, dan tidak sesuai akibat perbuatan politisi Jepang yang haus kekuasaan dan mencari ketenaran yang terikat oleh kekuasaan dan ide kuno. Tujuan kami adalah untuk memulihkan keadaan agar menjadi harmonis dengan prinsip-prinsip keadilan yang wajar dan masuk akal.

Lihatlah akibat penjajahan yang bertentangan dengan keinginan kami. Di bawah perlakuan yang tidak adil dan tidak setara, penindasan keji, dan statistik yang dipalsukan, penjajahan itu telah memperdalam lubang dendam dengan menghalangi keberadaan hubungan harmonis dari dua bangsa dengan kepentingan berlawanan. Siapa yang tidak dapat melihat bahwa jalan pintas untuk menghindari bencana dan menuju hubungan saling menguntungkan antara dua bangsa adalah dengan mengambil langkah-langkah berani untuk memperbaiki kesalahan masa lalu dan mengembangkan hubungan persahabatan baru berdasarkan rasa simpati dan pengertian tulus?

Mengikat secara paksa dua puluh juta rakyat yang penuh dendam dan amarah tidak hanya akan merusak perdamaian selamanya di wilayah Timur tetapi juga akan memperdalam ketakutan dan kecurigaan yang semakin meningkat terhadap Jepang, terutama dari empat ratus juta rakyat Cina yang merupakan kunci perdamaian di wilayah Timur Jauh. Hal tersebut pasti akan mendatangkan tragedi saling menghancurkan dari seluruh wilayah Timur. Oleh karena itu, kemerdekaan Korea adalah untuk mendorong rakyat kami mewujudkan kehidupan yang benar dan kemakmuran, lalu pada saat yang sama, untuk menyadarkan Jepang supaya melepaskan diri dari jalan yang salah dan memenuhi tanggung jawabnya sebagai penyangga wilayah Timur Jauh dan untuk menyelamatkan Cina dari setiap kecemasan dan ketakutan. Selanjutnya, kemerdekaan Korea akan menjadi sebuah langkah penting untuk membangun perdamaian di wilayah Timur dan di dunia dan demi kebahagiaan umat manusia.

Bagaimana semua ini dapat dianggap hanya sebagai ledakan emosi! Lihatlah, dunia baru terbuka di depan mata kami. Zaman Penguasaan telah berlalu dan Zaman Akal dan Kebenaran telah tiba. Semangat hukum moral dan kemanusiaan, yang dipelihara dan disempurnakan selama berabad-abad sebelumnya, akan memancarkan cahaya peradaban baru pada umat manusia. Kedatangan musim semi baru ke bumi menyerukan kebangkitan semua makhluk. Jika kekuatan masa lalu telah mencekam rakyat bagaikan salju dan es musim dingin, maka kekuatan masa kini adalah angin menyejukkan dan kehangatan musim semi.

Menemukan diri kami di tengah zaman pemulihan dan rekonstruksi ini serta berjalan di atas gelombang dunia yang berubah-ubah, kami tidak akan ragu-ragu ataupun takut menyelesaikan tugas kami. Kami harus menjaga hak-hak asasi kami untuk merdeka dan bebas serta untuk menikmati kebahagiaan hidup yang penuh. Kami akan menampilkan energi kreatif asli kami untuk mewujudkan kebudayaan bangsa kami yang cemerlang di dunia yang penuh dengan musim semi. Demi alasan ini, kami telah dibangkitkan.

Hati nurani umat manusia bersama kami; kebenaran berbaris bersama kami. Terlepas dari tua atau muda, kami akan bangkit dari tempat istirahat yang gelap gulita dan maju ke depan, akhirnya kami akan menikmati kebangkitan yang menyenangkan bersama semua makhluk di dunia. Roh leluhur kami akan melindungi kami dari jauh dan kekuatan seluruh dunia akan membantu kami dari luar. Menjalankan tugas ini merupakan keberhasilan; kami bersama maju menuju cahaya di depan kami.

Ikrar Tiga

1. Kami bertindak atas nama kehidupan, kemanusiaan, kebenaran, martabat, dan kehormatan serta permintaan rakyat. Kami tunjukkan semangat kemerdekaan kami; jangan biarkan siapapun mengikuti nalurinya untuk gelisah atas penolakan orang lain.

2. Setiap dan semua orang siap tunjukkan ide dan keinginan rakyat hingga akhir

3. Semua tindakan akan kami lakukan secara tertib dan takzim, sehingga tuntutan dan sikap kami terhormat dan jujur.

Tanggal 1 bulan Maret tahun ke-4252 sejak Kerajaan Korea didirikan (tahun 1919 Masehi). Atas nama wakil rakyat ;

Son Pyong-hui, Kil Son-ju, Yi Pil-chu, Paek Yong-song, Kim Wan-gyu, Kim Pyong-jo, Kim Chang-jun, Kwon Tong-jin, Kwon Pyong-dok, Na Yong-hwan, Na In-hyop, Yang Chon-baek, Yang Han-muk, Yu Yo-dae, Yi Kap-song, Yi Myong-yong, Yi Sung-hun, Yi Chong-hun, Yi Chong-il, Lim Ye-hwan, Pak Chun-sung, Pak Hui-do, Pak Tong-wan, Shin Hong-shik, Shin Sok-ku, O Se-chang, O Hwa-yong, Chong Ch'un-su, Choe Song-mo, Choe Rin, Han Yong-un, Hong Pyong-gi, and Hong Ki-jo

바람의 도시, 미국 일리노이 시카고

미국 일리노이주(州) 북동부에 위치한 시카고는 모든 주요 철도가 통해 제1의 교통도시로 불린다. 1871년 대화재로 시의 대부분이 소실됐으나 이후 지어진 현대 건축물과 공원이 도시의 상징물이 됐다. 시카고의 대표 관광지인 △애들러 천문관·우주 박물관△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시카고 미술관에 대해 알아보자.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 (출처: Google)

애들러 천문관 · 우주 박물관은 1930년에 개관한 미국 최초의 천문대다. 맥스 애들러 사업가가 천문학 관련 기구 500여 점을 들여와 이 천문대를 설립해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박물관은 △천문학의 역사△통신의 역사△운석△월석△화석 등과 관련한 약 2,000점의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아폴로 15호가 갖고 온 월석이 가장 유명하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시계와 12세기 페르시아의 천문 기구 등 진귀한 천문 관측기구가 전시돼 있다. 천문대에 위치한 '메인 레벨' 이란 극장에선 천문에 대한 학술적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스카이 극장' 에선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여주는 3D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은 관공서와 은행 등이 밀집한 중심지에 있다. 전액 기부금으로 조성된 이 공원은 2006년 봄에 완공됐으며 △건축△기념 조각품△주변 풍경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콩을 뜻하는 '더 빈(The Bean)' 이란 별칭을 가진 '클라우드 게이트' 는 이 공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조형물이다. 이는 △가로 20m△높이 10m△무게 110t으로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야외 설치물이다. 이밖에 '크라운 분수' 의 LED 타워도 공원을 대표한다. 두 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15.2m 높이의 LED 스크린엔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시카고 시민 1,000명 얼굴이 등장한다. 이렇듯 시카고 밀레니엄 공원은 다양한 볼거리와 넉넉한 휴게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말 휴식 공간이다.

시카고 미술관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 보스턴 미술관과 더불어 미국의 3대 미술관 중 하나로 꼽힌다. 미국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원제를 보유하고 있는 이 미술관엔 해마다 약 160만 명이 방문한다. 한편 이곳은 유럽 회화를 전시한 본관과 현대미술 · 미국미술을 전시한 신관으로 나뉘어 있다. 본관엔 대표적으로 △밀레△모네△르누아르△고흐 등의 작품이 있다. 이외에도 △사진△판화△조각△미라 등 약 30만 점이 넘는 다양한 작품도 전시돼 있다. 낯선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박물관부터 미술관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여유로운 분위기를 풍기는 시카고로 떠나보자.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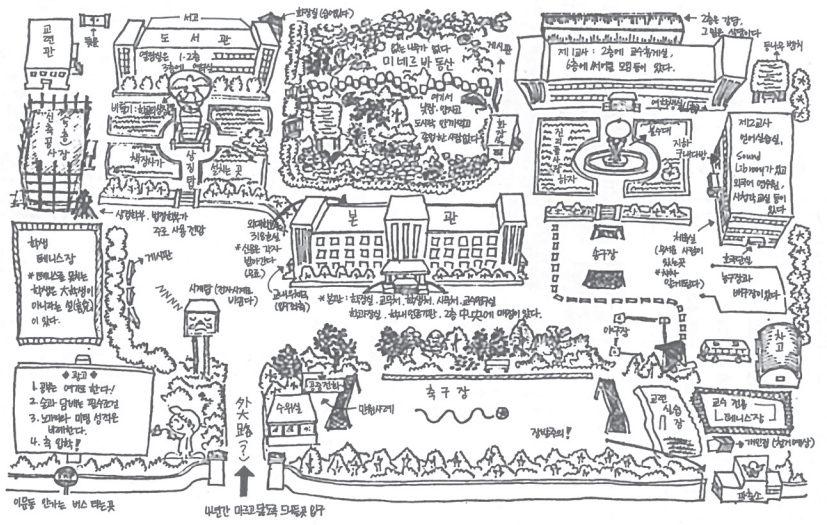
HUFS' tory 응답하라 1970's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외대학보로 읽는 반세기 전 외대 ④

이문동 미네르바 동산의 추억

▲1960년대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동산



▲외대학보에 실린 1976년 외 서울캠퍼스 조감도

우리학교는 1954년 종로 2가의 영보빌딩 임시교사에서 개교했는데 1957년 본관(현재의 역사관 건물)이 완공되면서 현재의 이문동 캠퍼스로 이전했다. 1960년대까지 이문동 교정은 학교 주변의 조경이나 기반 시설 등이 완전히 정비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학내엔 등나무 숲과 양계장 등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교문은 물론 울타리 경계도 만들지 못했다. 이에 캠퍼스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활용되기도 했다. 캠퍼스에 건물이 들어서고 지금의 형태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다. 당시 건물과 교육 시설의 구성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1976년 외대학보에 실린 서울캠퍼스 조감도를 보면 오늘날 법학관 앞 잔디 광장엔 당시 우리학교의 상징이었던 지구본과 비둘기 탑이 있었다. 또한 현재의 역사관은 대학본부로 활용됐다. 이밖에도 △GlobeeDorm의 자리엔 학생회관 겸 도서관 △대학원 자리엔 차고△ROTC 자리엔 교련관이 있었다. 1970년과 현재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점은 현재의 본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미네르바 동산' 의 존재다.

2000년대에 학교를 다닌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학창시절 상징적이고 추억이 많은 장소로 미네르바 동산을 꼽는다. 초창기 미네르바 동산은 현재의 사회과학관에서 인문관 분수대에 이를 정도로 꽤 넓은 규모였다. 이는 동산에 오르면 본관 너머 정문까지 보일 정도로 높았다. 또한 교정에서 계절을 가장 먼저 알리는 자연 이정표 역할도 했다. 이처럼 미네르바 동산은 오랜 시간 우리학교 학생의 곁을 지키며 △낭만의 장△예술의 장△학문의 장으로 사랑받았다. 현재 우리학교의 상징인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와 신조(神鳥)인 부엉이의 탄생 배경엔 '미네르바 동산'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네르바 동산은 2000년대 신본관의 신축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를 못내 아쉬워한 동문들은 '미네르바 미팅석' 을 세워 미네르바 동산이 소통의 장으로서 영원하기를 기원했다. 박병철 동문(상경 · 무역 67)은 미네르바 동산이 있던 자리에 '사계절 우리들의 꿈이 자라고, 가슴 설레는 젊음의 낭만과 정열이 숨쉬던 미네르바 동산이 있던 곳' 이란 글귀가 새겨진 동판을 부착했다.

*외대 역사관에서는 그 시절 추억이 담긴 서울캠퍼스와 미네르바 동산 관련 사진 기록물을 수집합니다. 동문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증 문의– 외대 역사관 : 02-2173-3981)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코로나19로 잠정중단된 교내행사, 향후 그 방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수업이 무기한 연기됐다. 동시에 정부와 교육부의 권고로 입학식을 비롯한 교내 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이번 해 예정됐던 행사와 취소된 행사의 진행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잠정중단된 교내행사 및 동아리 행사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개강이 무기한 연기되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입학식△새내기 배움터△축제 등이 취소됐다. 지난달 둘째 주 예정됐던 동아리 박람회 역시 양 캠퍼스 모두 취소됐다. 이선범(서양어 · 포르투갈 17)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장(이하 설캠 동연회장)은 이에 대해 "연기가 되더라도 진행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모든 단위의 행사취소를 권고했다"며 "결국 세 차례 연기 후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나현(서양어 · 프랑스 15)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취소된 여러 교내행사에 대해 "공약이기 때문에 임기 시작부터 준비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가 준비했던 교내행사엔 'HUFS SEASON GREETING'과 '이문 스퀘어' 등이 있다. HUFS SEASON GREETING은 사계절 특색에 맞춰 계절별 즐길 거리를 만들잔 취지로 기획된 행사다. 또한 이문 스퀘어는 명사초청 토크쇼다. 이는 대학생이 만나보고 싶었던 유명인이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사회인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행사다. 박장원(자연 · 화학 17)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장(이하 박 회장)은 "이번 학기에 예정됐던 교내 행사가 학교 측 권고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대한 총학 및 동아리 연합회의 대안

설캠 총학은 축제를 포함해 이번 학기에 시행하지 못한 행사를 2학기에 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축제에 대해 "코로나19 때문에 당장의 시행은 어려워 보이며 미뤄진 축제를 차후에 큰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설캠 총학은 명사 초청 토크쇼 이문 스퀘어를 온라인으로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달 3일, 설캠 총학은 '도서관 미리 보기'란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진행했다. 이날 참여한 약 200명의 학생은 실시간으로 대화에 참여하며 열띤 호응을 보였다. 박지윤(서양어 · 독일어 18) 씨는 "온라인으로나마 도서관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런 관심에 힘입어 설캠 총학은 새내기를 위한 '캠퍼스 미리 보기' 라이브 방송도 기획 중이다. 한편 설캠 총학은 온라인 투표독려 캠페인 '4.15 챌린지'를 시행하기도 했다.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The 본'(이하 글캠 총학)도 이번 학기 행사를 2학기로 연기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 본래 기획 의도가 저해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대신 2학기에 본래 예정된 행사를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글로벌캠퍼스 40주년 행사를 2학기 중에 기획하고 있다. 또한 창의 융합 학술제를 큰 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글캠 총학은 각 단과대와 학과의 지원을 받아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박 회장은 "많은 행사가 미뤄진 만큼 학우들이 학교에 남아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손민성(자연 · 수학 20) 씨는 "새내기 때 학교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아쉽다"며 "△동아리△총학생회△학교가 서로 연합해 시행되지 못한 행사를 2학기 때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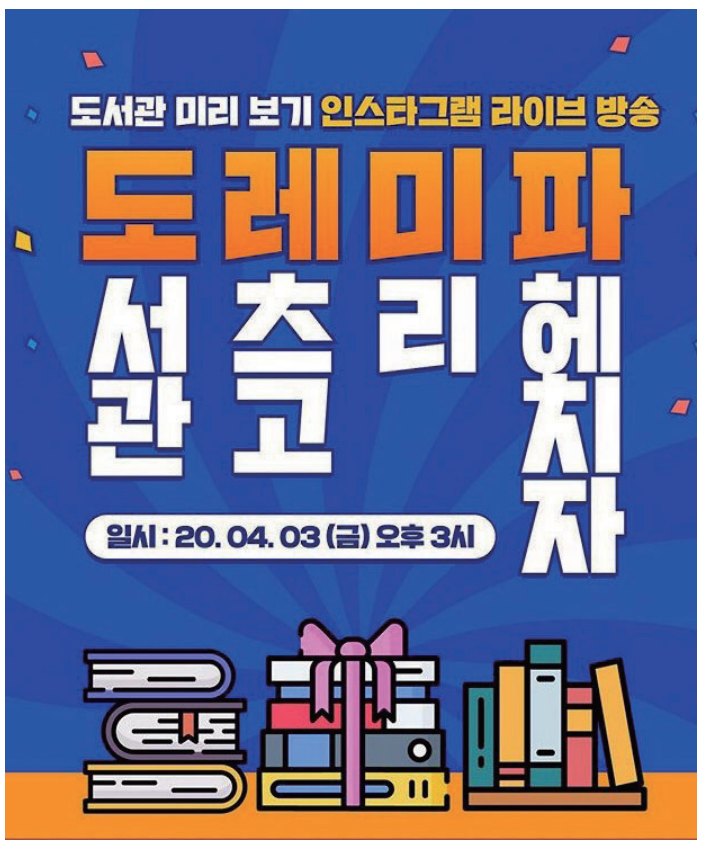
한편 글캠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연 비대위)은 개강이 2학기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9월 둘째 주 수요일에 동아리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캠 동연 비대위는 박람회 대신 동아리 홍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인스타그램에 배포했다. 이주영(바이오 18) 글캠 동연 비대위장은 "'동아리 이름으로 n행시 짓기' 행사 등의 온라인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각 동아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동연 차원의 홍보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아리 인원모집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처 방법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조연서(통번역 · 아랍어 20) 씨는 "동아리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원을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대면강의가 시작된 후 재모집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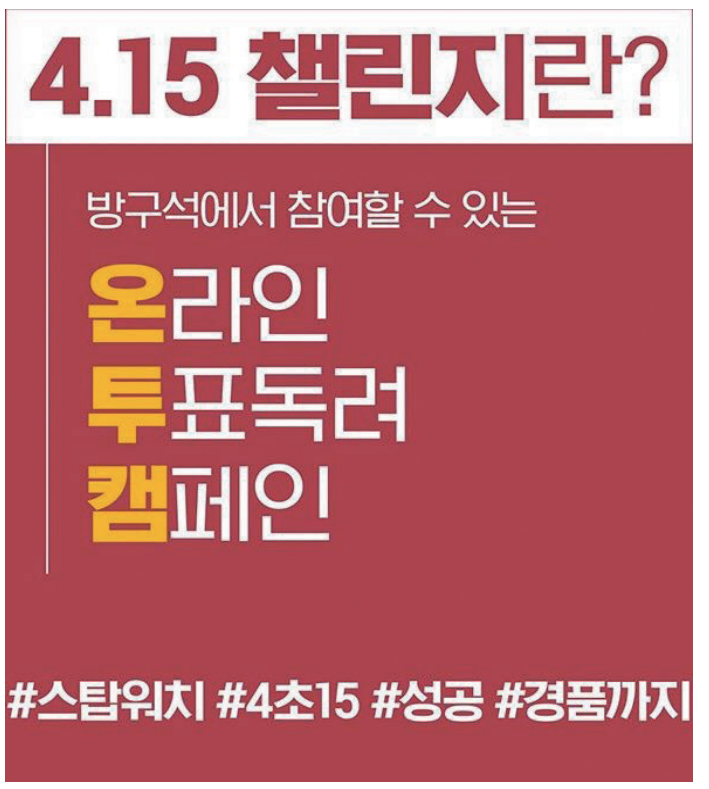
설캠 학생지원팀에 따르면 취소된 행사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이후 행사 일정은 설캠 총학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범석 설캠 학생지원팀 과장은 "재학생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기 전까진 행사 진행이 어렵다"며 "다만 일부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지양하고 동아리 활동 공간 사용을 자제 할 것을 당부했다.

글캠 학생지원팀은 2학기에 오프라인 개강이 시행된단 가정 하에 담당 학생들과 연락해 △동아리 박람회△세계 민속문화축전△총학생회 행사 등을 준비 중이다. 조수훈 글캠 학생지원팀 과장은 "학교 측의 규제도 있었으나 학생 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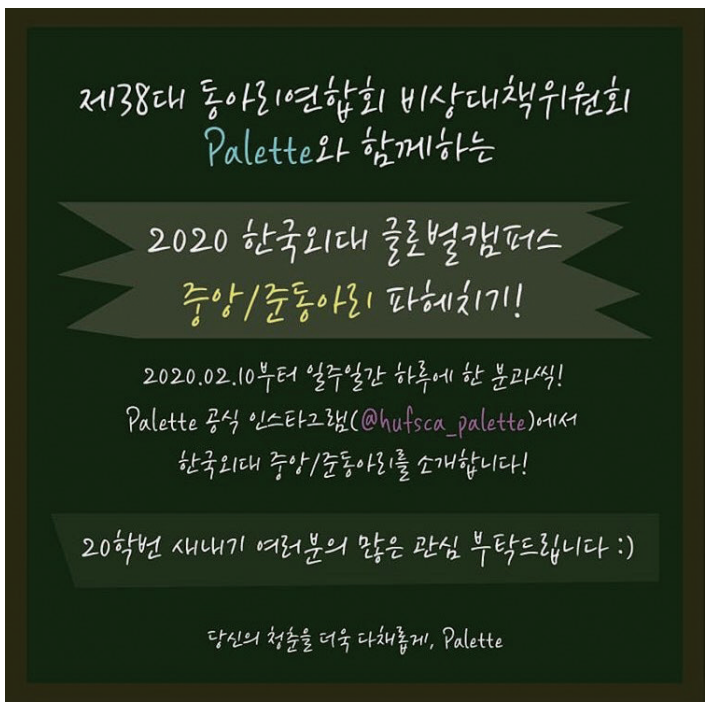
이 밖에도 이번 학기 완료돼야 할 동아리 인가와 방 배정을 동연회장과 논의해 2학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4.15 투표독려 캠페인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진행한 도서관 미리보기 라이브 방송



▲글로벌캠퍼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 위원회가 동아리 홍보를 위해 만든 카드뉴스

◆타학교 사례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새내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가 연이어 취소돼 학교생활 안내를 위한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했다. 동시에 수강신청 등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영상으로 만들어 제공했다. 이밖에도 새내기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활성시키기 위한 게임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수강신청 방법 및 졸업 요건 등을 카드뉴스로 공지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했다. 그리고 새내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료집도 배부했다. 단과대 학생회 차원에선 과별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새내기와의 소통창구를 마련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총학은 △신입생△재입학생△편입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3,800여 개의 축하 물품을 신입생 안내 책자와 함께 전달했다. 또한 다음 달 31일까지 ADOBE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했다. 사전조사에서 ADOBE 프로그램 사용 희망 수요가 높아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어 총학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이후로도 ADOBE 프로그램 프로모션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많은 대학 총학에서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학교 역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배달의민족, 과연 우리 민족으로 남을 것인가?

지난해 12월, 딜리버리히어로(이하 DH 그룹)가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했다. 이에 일각에선 배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시장 독과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달 1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일부 업체의 수수료가 폭등해 우려는 가시화됐다. 이에 소상공인의 반발이 잇따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진 것이다. 현재 배민 수수료 체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수료 체계 개편과 반발△정치권 및 지자체의 대응△전망을 살펴보자.

◆섣부른 요금제 개편, 난항 거듭한 배민

지난해 12월, 우아한형제들이 4조 7,500억 원에 DH 그룹으로 매각됨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해당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경쟁 시장 체제를 제한하는지 심사하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될 시 기업결합 금지 등 시정조치를 취한다. 이번 심사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받는다면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 중인 DH 그룹은 국내 배달 앱 시장 99%를 점유하게 된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은 합병으로 인한 독점 시장 형성이 일으킬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배민 55.7%△요기요 33.5%△배달통 10.8%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달 1일, 배민이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도입하며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기존에 정액제 '울트라콜'을 위주로 운영해오던 수수료 체계를 정률제 '오픈서비스'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절반 이상의 업체들의 수수료가 폭등해 배민은 논란에 휩싸였다. 울트라콜은 한 달에 부가가치세 포함 8만8천 원을 내면 각 항목에서 무작위로 가맹점을 노출시키는 제도다. 즉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 한 칸의 월세가 8만 8천 원인 셈이다. 이 제도는 한 업체당 구매할 수 있는 칸의 개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과도한 광고 노출로 주문을 독점하는 이른바 '깃발꽂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민은 새로운 오픈서비스를 도입하며 "기존 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규모 업소와 신규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밝혔다. 오픈서비스는 배민을 통해 들어오는 매출의 6.3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픈서비스 체제가 확대된다면 개편 이후에도 울트라콜을 사용할 순 있지만 앱 화면 노출 확률은 현저히 낮아진다.

새로운 체제 도입에 다수의 소상공인은 강력히 반대했다. 이번 달 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존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지불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며 수수료 부담이 커졌다"며 "월매출이 3천만 원인 경우 기존 울트라콜 3건 이용 시 26만 원이던 수수료가 174만 원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례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폭등시킨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평균 이익률은 14.5%이다. 월매출 3천만 원이면 순이익이 435만 원인 것이다. 이 중 수수료가 174만 원이라면 순이익의 약 35%가 수수료인 셈이다. 이에 정률제 도입에 따라 폭등한 수수료 부담 폭에 비해 소규모 업체에 돌아가는 혜택은 적단 이의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 또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달 7일,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독과점 여부를 심사받는 도중 수수료 체계를 바꿀 수 있단 것 자체가 시장 지배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라며 "변화된 수수료 체계가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배달업 시장이 신산업 분야란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신규 경쟁 업체의 진입이 충분히 가능한 시장 상황이라면 기업결합을 무조건적으로 막진 않을 것이라 전했다.

이번 달 6일,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자 우아한형제들은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하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체들의 어려운 상황과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황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이번 달 수수료 절반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달 10일, 김 대표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은 두 번째 사과문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오픈서비스 체계를 전면 백지화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의 무게감을 느꼈다"며 "앞으로 입점 업주와 상시로 소통하기 위해 협의체를 마련하고 정부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다.

◆배민에 대한 정치권 및 지자체의 대응

배민의 수수료 체계 개편 발표 이후 소상공인의 반발과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일부 정치권에선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의민족의 요금제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의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배민 수수료 폭등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전라북도 군산시청은 1억 3천만 원을 투입해 '배달의명수'를 개발했다. 이는 공공 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에게 가입비와 광고료를 받지 않아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엔 지역 화폐를 이용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이하 이 지사)는 최대한 빠르게 경기도 공공 배달 앱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달 9일,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 기술 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기업 활동은 모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배달의명수가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런 지자체 차원의 대응에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지자체의 공공 배달 앱은 개발 · 운영비용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에 한 누리꾼은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 입장에선 세금 낭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에서 관심과 투자를 유지해 민간기업만큼의 효율성을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19 공공 앱 성과 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운영 중인 공공 앱 322개 가운데 225개가 개선 또는 폐기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미뤄 볼 때 현재 공공 배달 앱의 효율성은 불명확하다.

이번 달 10일, 배민이 오픈서비스 전면 백지화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공공 배달 앱 개발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하 안 대표)는 "지자체가 공공 배달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며 개발을 반대하고 '플랫폼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안 대표를 비판하며 "배민이 결정을 철회하긴 했지만 독과점 시장에선 언제든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순간 독과점은 시기와 정도 문제일 뿐"이라 지적했다.

◆배민의 전망은

다음 달 1일, 배민은 이전의 울트라콜 체제로 다시 돌아간다. 이에 일각에선 이 체제의 광고 독점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배민은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민에 대한 비판 여론에 스타트업계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배민이 독점이라 비판받지만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계속 접점이 생기기 때문에 대항마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단 것이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배민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대응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어 "지금 배민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도 수수료가 높은 독점 플랫폼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버이츠(Uber Eats)△그랩푸드(Grab food)△도어대시(Doordash)와 같은 음식 배달 앱 해외 서비스의 경우 각각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 배달 앱이 전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DH 그룹과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 판단에 신중을 가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 앱은 온라인 기반 오프라인(O2O) 서비스를 토대로 한 신생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점유율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단 것이 그 이유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우리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기업결합을 두고 "독과점 우려도 고려해야 하지만 신사업 시장의 마진 한계를 고려한 전략적인 요인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합병 심사를 앞두고 배민의 수수료 체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가운데 국내 배달앱 시장의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배달의민족 (출처: 우아한형제들)

김미정 기자 100kimmijung@hufs.ac.kr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20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모집

1.2020학년도 후기 입시 일정

구 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20.04.13(월) ~ 04.27(월)	2020.05.18(월) ~ 06.01(월)
고사장 발표	2020.05.06(수) 15:00	2020.06.10(수) 15:00
면접전형	2020.05.09(토) 10:00 예정	2020.06.13(토) 10:00 예정
합격자 발표	2020.05.21(목) 15:00	2020.06.25(목)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20.05.21(목) ~ 05.27(수)	2020.06.25(목) ~ 07.01(수)

*위 전형계획 및 시행일정은 정원 충원상황 및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영어교수학습지도 학과(ELT)
나. 영어교육 콘텐츠 개발학과(ELT CD)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5. 전형방법: 서류심사및면접시험(영어Writng포함)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전형장소:서울캠퍼스(자세한고사장및고사실은추후공지)

7.기타사항
가. 신입생 입학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나. 재학생 성적 우수 장학금(학과별 약간 명)
다. 현직 교사 장학금(매 학기 지급)
라. 학점인정 혜택(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TESOL 자격증 취득자)
마. TESOL 연구과정(자격증 과정) 수료자 우대
바. 복수 학위 프로그램(템플대학교), 3+1프로그램(하와이대학교)
사. Internship 프로그램(샌디에이고, 하와이)

8.기타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http:/tesolgs.hufs.ac.kr및모집요강참조

9.한국외국어대학교TESOL대학원교학과
TEL.02-2173-3521~2FAX.02-2173-358 (우)02450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GRADUATE SCHOOL OF TESO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코로나19의 비밀을 밝힐 RNA 전사체. RNA는 무엇일까?

이번 달 9일, 김빛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했다. 이에 코로나19에 대한 고정밀 진단키트와 치료제 개발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됐다. 명희준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의 구성 요소인 RNA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명희준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교수

Q1. 연구진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을 활용해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 RNA 전사체*를 분석했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은 어떤 분석 방법인가요?

1970년대 DNA의 염기서열 분석법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이후 염기서열 분석법은 기술적 진보를 거듭했고 2003년에 휴먼 지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의 완성을 이끌었습니다. 휴먼 지놈프로젝트는 인간 유전체의 염기서열 순서를 알기 위해 여러 나라가 참여한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생명과학 사업입니다. 초기의 염기서열 분석법은 1회에 200개 염기 정도를 읽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Next Generation Sequencing)은 30억 개의 염기로 이뤄진 인간의 유전체도 하루 만에 읽어낼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법은 △대량 절편의 동시 서열 분석△자동화△컴퓨터를 이용한 서열정보 잇기를 특징으로 합니다. 여기서 DNA 절편은 연구 대상 DNA를 제한 효소**로 잘라낸 일부를 뜻합니다.

이번 연구진은 여기에 더해 DNA나 RNA의 서열을 분석하는 나노포어 시퀀싱(Nanopore Sequencing)이란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은 RNA의 염기서열을 직접 읽어내는 과학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곰팡이△바이러스△세균의 완전한 DNA 또는 RNA 게놈***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긴 염기서열 읽기를 사용해 DNA 구조 변형 및 염기서열 반복 구간의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Q2.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DNA가 아닌 RNA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RNA의 정의와 개념은 무엇이고 DNA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DNA와 RNA는 생물체 내 필수적 요소로서 그 역할이 다릅니다. 세포로 이뤄진 모든 생물체는 유전정보를 DNA에 저장하고 그 유전정보를 발현할 때에 RNA를 거쳐 단백질을 만듭니다. 즉 DNA가 유전정보의 설계도를 보관하는 창고라면 RNA는 설계도에 맞게 필요한 재료를 공수하거나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RNA에 유전정보를 저장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메르스 바이러스△사스코로나바이러스-2△에볼라 바이러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DNA는 이중 나선 사슬 구조이고 RNA는 단일 나선 구조란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Q3.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와 같은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는 어떤 방식으로 숙주세포를 감염시키나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숙주세포 상의 수용체를 인지해 표면에 붙은 다음 세포 내로 들어갑니다. 세포에 침투한 RNA는 RNA 유전체를 복제하고 동시에 그곳에서 전사를 일으킵니다. 전사란 RNA가 염기서열의 화학 작용을 통해 아미노산을 생성하고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가 생존하기 위한 단백질이 생성됩니다. 충분한 양의 RNA 유전체와 바이러스 단백질이 숙주세포 내에 쌓이면 바이러스 입자가 조립되고 세포 바깥으로 방출돼 또 다른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Q4. 이번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RNA로 구성됐기 때문에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RNA 유전자 지도를 만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유전자 지도는 어떤 의의가 있나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RNA 유전체의 길이가 약 30 킬로베이스(Kilobase)****로 RNA 바이러스 중 긴 편에 속합니다. 이 바이러스의 문제는 해당 RNA 유전체 외에도 길이가 짧은 서브게놈 RNA(Subgenomic RNA)(이하 sgRNA)를 많이 만들어 낸단 것입니다. 그중 9개의 sgRNA는 단백질 합성에 쓰이지만 이외에 다른 sgRNA에 대해선 그 기능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유전자 지도는 이런 sgRNA의 종류를 모두 알아내고 그 염기서열을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이는 바이러스 유전정보의 발현 과정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Q5. 연구팀은 사스코로나바이러스-2 RNA의 화학적 변형이 최소 41곳에서 일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RNA의 화학적 변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RNA의 화학적 변형은 RNA를 구성하는 염기의 화학성분이 미세하게 달라졌단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국 특정 염기서열이 화학적으로 변형됐단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변형된 특정 염기서열이 RNA가 생산하는 아미노산 및 단백질의 정보를 달라지게 한단 것은 아닙니다. 이런 화학적 변형은 숙주세포 내에서 바이러스에게 유리한 생존 환경을 끌어내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Q6. 사스, 코로나19 등 최근 전 세계를 휩쓴 바이러스는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성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르스△사스△코로나19는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지만 각각 변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종류가 다양해 DNA로 구성된 바이러스보다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가 더 성행한다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RNA로 구성된 바이러스의 백신을 개발하는 작업이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로 들어가 유전체를 복제하는 과정에선 숙주세포의 DNA 복제 효소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DNA 복제 효소는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는 10^8~10^{11}개의 염기를 복제할 때 1개를 잘못 끼워 넣는 정도의 실수와 같은 정확도입니다. 그 정확도의 비결은 복제 시 거치는 프로프리딩(Proofreading) 과정입니다. 이는 교정 작업으로써 DNA 복제 과정에서 DNA 중합효소*****에 의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RNA를 복제하는 RNA 바이러스는 숙주세포의 DNA 복제 효소가 아닌 자신의 RNA 복제 효소를 사용합니다. 해당 바이러스의 RNA 복제 효소는 프로프리딩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10^3~10^4개의 염기를 복제할 때마다 1개를 잘못 끼워 넣는 실수가 발생합니다. DNA 바이러스와 비교해 정확도가 떨어진 RNA 바이러스 프로프리딩 기능은 결과적으로 수많은 돌연변이를 유발합니다. 바이러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항원으로 미리 체내에 주입해 면역항체를 준비하는 것이 백신입니다. 이때 주입해야 할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중 주요 면역체계가 인지하는 부분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앞서 주입한 체내 항체는 쓸모없게 됩니다. 이는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와 C형 간염 바이러스(HCV)와 같은 RNA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RNA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도 있습니다. 대표적 예로 독감(Flu)이나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전사체:** 세포 또는 조직에서 발현된 RNA의 총합

****제한 효소:** DNA의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 그 부위를 선택적으로 절단하는 효소. 다른 생물로부터 들어오는 DNA를 절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기능을 함

*****게놈(Genom):** 낱낱의 생물체 또는 1개의 세포가 지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의 총량

******킬로베이스(Kilobase):** 핵산의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 1 킬로베이스는 1,000개의 염기 또는 염기쌍이다

*******DNA 중합효소:** DNA 사슬에 뉴클레오타이드를 연결하면서 새로운 DNA를 합성하는 효소.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20학년도 후기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20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특별전형	2020. 4. 1(수) ~ 4. 7(화)	4.25(토) 10:00	5. 7(목) 14:00	5.11(월)~ 5.15(금)
일반전형	2020. 5. 7(목) ~ 5. 13(수)	6. 6(토) 10:00	6. 18(목) 14:00	6.22(월)~ 6.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 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20년 8월(일본 소재 대학 졸업자는 9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모집학과
석사과정 50개 학과, 박사과정 45개 학과 (홈페이지 모집요강 참조)
4.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함.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면접)
6. 전형방법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
나.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라. 기타 본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뒷담화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기자가 되고 싶은 이유

난 이과 학생이었다. 과학동아리 회장이었고 고등학교 생활 내내 주기율표와 씨름했다. 나 자신이 수학 공부를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티 낼 수는 없었다. 내가 속한 세계가 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학자인 우리 아빠는 아들과 함께 연구하는 모습을 로망으로 간직하고 계셨다. 매일 정교하고 객관적인 수치들을 만지다가 퇴근하는 아빠에게 철학이나 문학은 힘없는 탁상공론이었다. 그렇다 보니 내가 실체 없는 무언가를 좇다가 고꾸라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을 걱정했다. 17살의 내가 뚫어내기엔 너무도 두텁고 올곧은 벽을 앞에 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저 조금씩 비껴가는 것이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공대에서 가장 감성적인 요소가 많은 환경공학과를 지망했고 스펙을 쌓는단 명분으로 토론부 활동에 매진했다. 각종 과학 소논문 대회와 동아리 발표 대회에 출전하는 족족 상을 탔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실험내용이 있더라도 말과 글로 때우는 법을 익혔다. 심사위원들은 발표를 유려하게 하는 참가자를 더 좋아했다. 딱 그 정도의 '척'이 내가 참전한 학종 전쟁의 깊이였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과학공부는 더 어려워졌다. 관심도 없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리 없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내가 원치 않는 미래가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때마다, 서서히 좁아지는 정사각형의 방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사건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쌓아둔 비밀의 부피만큼이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진 긴 시간이 걸렸다. 언론과 정치집단도 늘 그래왔듯 거짓말과 '아무 말'을 동원해 자신의 진영을 열렬히 옹호했다. 조선일보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내기 시작한 뒤에야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처음부터 주시하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인물과의 유착으로 탄핵당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비현실적인 당시 상황에 무뎌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최악의 국정 파탄 사건의 주역은 대기업 회장도, 국회의원도 아닌 소수의 내부자만 알고 있던 중년의 여성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한 4년간, 진실은커녕 그 실마리조차도 나의 세계 안엔 없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올 때, 교실엔 흥분이 맴돌았다. 하지만 내가 느낀 건 공포였다. 나와 진실 사이의 거리를 알게 됐고, 이번엔 아주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부터 나의 머리를 지배한 것은, 어떻게 실체적 진실에 가까워질 것인가에 관한 생각이었다.

기자가 돼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하는 것이 더는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다. 내가 갇혀 있던 세계를 우습게 뭉개버릴 더 큰 세계가 나타난 것이다.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재수를 결정하게 됐을 때 나는 문과로 전향했다.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존중하겠단 결론을 내렸지만 단호한 나의 태도에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공학과에 진학해 수학과 물리에 압사당할 뻔한 내가 참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느껴진다. 아직도 내가 진실로부터 멀리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감을 간직하고 있다. 재수 생활과 대학 새내기 생활을 지내면서 현상을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됐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수업들은 늘 즐겁다. 보다 능동적으로 나의 미래에 대해 모색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친구는 내 이런 얘기를 평탄한 인생의 귀여운 투정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어떤 래퍼의 말대로 각자의 인생엔 나름의 고충이 있는 법 아니겠는가.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2017년 봄에, 비로소 나는 내 인생의 복판으로 걸어들어왔다.

이준성 기자

도서칼럼 [책으로 보는 세상]

[김혜진 작가의 '9번의 일'을 읽고] 한 인격이 노동의 부품으로 전락한다는 것

2013년 봄, 밀양의 송전탑 설치 반대 촛불 시위(이하 촛불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낮엔 밀양에 사는 할머니들의 밭일을 돕고, 밤엔 촛불 시위에서 촛불을 들었다. 시위에선 주민들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및 한전에서 온 설치 기사들을 비난했다. 어떻게 주민들의 삶에 저토록 무관심할 수 있냐며, 나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다. 그땐 한전과 한전의 설치 기사들이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은 7년이 지나 김혜진 작가(이하 김 작가)의 '9번의 일'을 읽고 난 후에야 변하기 시작했다.

9번의 일의 주인공인 '그'는 통신회사 현장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해왔다. 그러나 20년 이상 노동한 그에게 내려온 것은 저성과자란 낙인과 권고사직 권유였다. 권고사직을 거부하자 그에겐 지방 센터에 가 본래 업무인 인터넷 설치가 아닌 인터넷 상품 영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과가 좋지 않자 본사는 그를 쫓아내듯 다른 도시의 시설팀으로 발령한다. 이러한 지시에 반발하기 위해 회사 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해봐도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소속이 될 뿐이다. 마침내 하청업체 소속이 돼 받은 업무는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송전탑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오직 소속번호인 '9번'으로 불린다.

자신의 이름을 잃고 번호로만 칭해지는 과정에서 그는 노동의 부품으로 전락한다. 계속해서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되새기며 의지를 다잡으려 노력한다. 그러나 이미 노동의 부품이 된 그는 점차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의식을 잃어갈 뿐이다. 즉 노동의 결실만을 원하게 된 것이다. 이에 그는 송전탑 설치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고민하지 않고 반대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을 노동의 장애물로 치환한다.

김 작가는 노동, 자본 시스템으로 인해 한 인격이 자신의 삶을 갉아먹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김 작가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길을 막는 주민들에게 막말하며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다친 개를 치료해주며 주인에게까지 데려다주는 그의 선량한 마음을 잊게 하는 자본 시스템에 주목해야 한단 것이다. 이런 김 작가의 호소는 밀양의 송전탑 설치 기사들은 악한 사람들이며 나완 다른 사람들이라 선 긋던 나를 변화시켰다. 물론 작품 내의 그와 7년 전 목격했던 한전 기사들의 행동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다만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평범한 사람들이 윤리를 잊고 단순한 부품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사회의 자본 시스템에 비판의 화살을 돌릴 뿐이다. 작품 속 그가 "일이라는 건 결국엔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며 "좋은 거, 나쁜 거, 그런 게 정말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를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노동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이현지 기자 100hyunzi@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히트맨'을 보고] 가족이란 무엇인가

'봉준'은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여읜 고아다. '덕규'는 싸움 실력이 출중한 봉준을 암살단 '방패연 프로젝트'에 합류시켜 살인 병기로 키운다. 이후 국정원 에이스로 성장한 봉준은 임무 수행 중 사망한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수였다. 살인 병기로서의 삶에 진저리 난 봉준이 만화가란 꿈을 실현하기 위해 사고사로 위장하고 잠적한 것이다. 그는 수혁으로 이름을 바꾸고 미술 강사 '미나'와 결혼해 가정을 꾸린다. 딸 가영에게 "아빠의 얘기를 써보라"란 조언을 들은 봉준은 자신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담은 '암살요원 준'을 그린 뒤 잠이 든다. 그리고 미나는 봉준 몰래 이를 출판사에 보낸다. 해당 작품이 인터넷에 게재된 후 폭발적 반응이 쇄도한다. 이후 '암살요원 준'을 그린 이는 봉준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린 국정원 직원들은 방패연의 마지막 요원인 철을 호출해 봉준을 잡으려 한다.

영화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화면 구성이다. △실사△애니메이션△웹툰을 수시로 이동하는 다채로운 화면 구성을 보여준다. 이런 독특한 구성 조합은 웹툰 작가인 봉준의 직업을 강조한다. 동시에 단조롭지 않은 구성이 지루함을 없애 관객을 극에 몰입시킨다.

봉준의 모습을 통해 비인기 웹툰 작가의 현실을 조망한다. 대중은 특정 작가의 작품만 소비한다. 열심히 노력해도 조명 받지 못한 비인기 작가는 어딘가 늘 존재한다. 이는 웹툰 작가뿐만 아닌 다른 예술가의 현실이기도 하다. 영화는 이런 당연하지만 생각해 보지 못했던 현실에 대해 가감 없이 보여준다. 소수의 인기 예술가의 작품에만 관심 갖던 관객에게 여러 예술가가 직면한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영화는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한다. 가족은 대화하지 않아도 힘이 되고 버팀목이 돼주는 존재다. 영화 속 봉준은 아내가 벌어오는 돈에 의존하며 가영이 갖고 싶어하는 피아노 하나 사주지 못한다. 이에 자신을 원망하며 가족 몰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한다. 봉준은 가영에게 그 사실을 들킨 후 가영이 충격받을까 걱정하나 오히려 가영은 봉준에게 담담한 위로를 건넨다. 꾸며낸 말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진심이다. 영화 속 아내는 봉준에게 까칠한 태도로 대하고 딸 역시 봉준에게 다소 직설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봉준의 든든한 지원자다. 영화 속 주인공은 완벽하지 않고 어딘가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 든다. 이에 자칫하면 진지해질 수 있는 내용에도 중간중간 웃음이 지어졌다. 겉으론 가볍게 보이는 영화지만 관객에게 진한 여운을 남긴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

1042호 학보를 읽고

코로나 시대의 개막,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김행운(중국 · 중외통 19)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을 자제하게 되며 일상의 감사함을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일상에 치여 관심을 두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를 이번 1042호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최근 교내 간식 행사엔 비건 간식 신청란이 등장했다. '채식주의'란 개념이 다소 생소했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번 호에선 채식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채식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이하 설캠 총학)의 사업 현황에 대해 보여준다. 특히 학생식당에 대한 언급이 인상적이다. 일반 독자로 하여금 채식주의자가 접한 어려움에 대해 공감할 수 있게 했다. 채식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설명해준 것 또한 인상 깊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채식에 대한 관심이 재고돼 채식주의자의 일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다만 채식주의가 환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해줬다면 더 잘 이해됐을 것이란 아쉬움이 있다.

온라인 강의 중 음란물 섬네일 노출 사건은 큰 논란을 불러왔다. 강의를 듣지 않는 입장에선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뉴스 등으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호는 교수의 사과문과 학교의 대처 등을 더욱 자세히 다뤄 독자들이 알 수 있게 해줬다. SNS상에서의 신상 털기 및 사실 왜곡 또한 논란이 됐다. 교수의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퍼진 모습을 보고 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독자에게 도를 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단 권고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3면에선 20대 대학생의 정치참여를 다뤘다. 우리학교 설캠 총학은 선거 독려 운동 중 하나로 4초 15에 타이머 맞추기 캠페인 '총선 맞이 4.15 챌린지'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목적에서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자제시켰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기사 본문에 담았다면 좋았을 듯하다.

위의 내용 이외에도 1042호에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타 학교의 모범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최근 시행된 △민식이법△n번방 신상 공개 논란△천안함 피격 10주년△금융감독원 최초의 여성 부원장 김은경 교수와의 인터뷰를 다뤘다. 이렇게 교내에서 화두가 된 이야기를 취재해 자세한 내막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건 학보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적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학교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독자의 진로 탐색에 도움을 준 점이 좋았다. 마지막으로 이번 1042호 발행을 위해 힘쓴 외대학보 기자 분들께 고생했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와 더불어 많은 사람이 외대학보의 노력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 교내 사건 · 사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042호 학보를 읽고

외대학보, 외대생을 대변하다.

손서연(통번역 · 영어 19)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요즘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와 관련한 뉴스로 아침을 시작한다. 이를 볼 때마다 국내 상황이 나아지고 있단 안도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수많은 의료진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느껴진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신의 위치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최선이란 생각도 든다. 외대학보 또한 늘 그렇듯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이슈를 가감 없이 전달하며 학생을 대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선 채식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 채식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기본적 정의를 제시하고 우리학교 채식주의자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동시에 채식주의자를 위해 교내 식당이 진행하고 있는 복지 사업과 보완점을 언급한다. 다만 교내 채식주의자 비율을 수치로 제공했다면 채식주의자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독자가 더욱 체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면에선 코로나19로 인한 파장을 최전선에서 실감했을 교내 교환학생과 유학생이 마주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 해당 기사에선 이와 관련한 △국제교류팀△서울캠퍼스 총학생회△양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대처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또한 다음 학기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생에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제시한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학교의 대처가 매끄럽진 않았다. 이와 관련된 학생의 불만을 왜곡 없이 전달했단 점에서 기사를 신뢰할 수 있었다.

우리 사회는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실상을 마주했다. 모두가 이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학교 교수가 온라인 수업 중 음란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전송받은 대화창이 학생에게 노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5면에선 논란의 중심인 교수가 직접 올린 사과문과 학교 측의 대처 방안을 설명한다. 또한 해당 수업 학생의 심경 등 논란과 관련한 여러 입장을 제시해 독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9면에선 n번방 사건에 가담했던 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법적 논점을 짚었다. 우리학교 법학연구소 초빙 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사의 신뢰성을 높였다. 해당 기사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법적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나아가 이전의 디지털 성범죄와 이번 사건을 차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한다. 독자는 가해자 신상공개가 '사생활보호법'과 충돌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해당 기사는 우리나라의 성폭력처벌법 관련 기준을 객관화해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끝으로 항상 독자를 위해 왜곡 없이 이야기를 전달해준 모든 외대학보 기자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끊어내야 할 고리

'n번방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오랜 기간 뿌리내린 여성 성 착취를 묵인한 결과다' 외대학보가 포함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가 발표한 n번방 사건 성명문의 첫 문장이다. 필자는 여기에 목소릴 싣는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사회는 여성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잃은 지 오래다. n번방 사건 전엔 소라넷, 웹하드가 불법 동영상 촬영물의 유통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1999년 등장한 소라넷은 무려 100만 명의 가입자를 거느렸다. 성매매 후기를 공유하던 가입자는 이를 촬영해 올리고 의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을 모의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잔혹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스너프 필름은 이곳에서 '콘텐츠'로 소비되는 영상 중 하나였다. 소라넷이 사라지자 이 영상물은 고스란히 웹하드로 옮겨갔다. 웹하드는 디지털 장의업체까지 손잡고 카르텔을 형성해 범죄를 저질렀다. 장의사는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해주는 척 속이며 수익을 남겼다. 소라넷, 웹하드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단 것이다. 소라넷의 공동운영자는 총 3명이었으나, 이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1명뿐이다. 여기에 소라넷을 받치고 있던 100만 가입자는 그 신원을 알 수 없게 됐다. 몇 년간 수사 기관은 서버가 해외에 있단 말을 앵무새마냥 반복할 뿐이었다. 이런 행태는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으로 적용돼, 해외에 서버를 둔 알 수 없는 사이트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이번 해 법무부는 '2020 성범죄백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재범률은 75%며, 이는 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일부 언론사는 이에 대해 보도할 때, 여성 성범죄자의 남성 대상 범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전체 1만 4,882명의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는 829명으로, 이는 2.5%다. 언론의 이런 보도 방식은 본질을 흐린다. 클릭 하나에 수많은 여성의 삶이 으스러졌다. 소라넷의 100만 명, n번방의 26만 명의 가담자는 범죄율에 집계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집계율이 유의미한 수치일지 의심해 봐야 한다. '그릇된 보도를 일삼는 일부 언론의 행태는 사회를 암흑 속으로 내몬다' 성명문의 마지막 문장이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미온한 사회의 태도가 형성되는데 언론이 일조하진 않았는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김나현 편집장 98nahyuuuny@hufs.ac.kr

한줄평...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김나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미정: 원격강의로 인한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김연수: 기숙사 측의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우: 과학의 위대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과를 존경합니다.

이서미: 2학기엔 정상 개강 하여 학교 행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준성: 21대 국회는 좀 더 조화롭게, 좀 더 성실하게 일해주길 기대합니다!

이현지: 학생들이 불안 없이 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기대합니다.

조미경: 사회적 거리는 멀게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빛을 발할 순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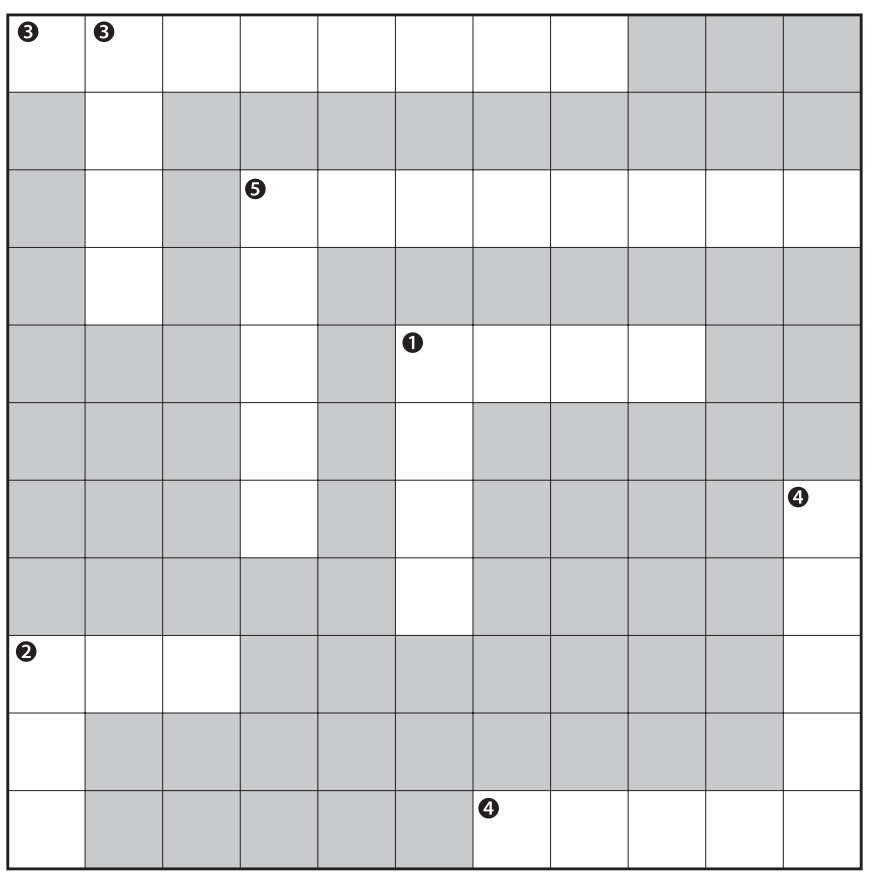
조하영: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는 우리학교 사람이 대단합니다!

조현수: 학교와 학생 간, 정치사회와 대학사회 간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최민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번역한 우리학교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허지나: 진정한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OOOO, 해외 동문 마스크 전달 캠페인 진행해 (1면 참조)
2. 당시 미국 정부는 OOO 타워(Sears Tower)와 같은 대부분의 고층빌딩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12면 참조)
3. 이번 달 2일, 우리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에서 OOOOOOOO 홍보단 위촉장 수여식이 열렸다. (2면 참조)
4. 대교협은 등록금 반환 대신 생활장려금, OOOOO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5면 참조)
5. 이처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우리학교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 원격수업 설문조사 결과를 각 학과 · 학부에 전달해 신속하게 불편사항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5면 참조)

세로

1. 서울캠퍼스 OOOO '새벽으로부터' (이하 설캠 총학)가 준비했던 교내행사엔 'HUFS SEASON GREETING'과 '이문 스퀘어' 등이 있다. (7면 참조)
2. 바람의 도시, 미국 일리노이 OOO (6면 참조)
3. 설캠의 경우 OOOO와 글로벌홀(GLOBAL HALL) 운영팀이 관련 사항을 공지했다. (4면 참조)
4. 대교협은 등록금 반환 대신 OOOOO, 특별장학금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5면 참조)
5. 우리학교 OOOOO이 모바일 ID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도서관 앱을 '한국외대 모바일 ID 앱'으로 통합했다. (2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설

이순지(李純之)의 오성(五星) 기록과 고대한국인들의 사유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하늘과 사람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선사시대 고인돌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대부터 하늘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그것이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그것들이 어둠 속에 묻혀 우리에게 망각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영향을 예견하는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다. 사람이 태어날 때, 해와 달 그리고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의 오성(五星)의 위치와 중요한 별자리의 운행을 관찰하여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사주, 기문학, 자미두수 등이 있었다.

이순지(李純之, 1046-1465)는 세종(世宗)으로부터 어느 날 한양의 북극고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일한 답을 하게 된다. 이 계기로 그는 세종의 신임을 받았고 조선 초기 조선 최고의 천문학책을 남긴 천문학자가 되었다. 그의 저술 중 『천문류초(天文類抄)』는 세종의 명을 받아 만든 천문학 책이다. 이 책에 해와 달과 다섯 개의 별인 오성의 결집 기록이 나온다. 삼황오제 가운데 하나인 전욱 고양씨 부분에 "일월오성개합재자(日月五星皆合在子)"라는 기록이다. 이 기록이 사실이기 위해서는 갑인년인 BC2467년에 오성결집이 있어야 한다. 전 천문연구원 원장이었던 박석재는 그보다 3년 전인 BC2470년 9월 새벽에 오성취각(五星聚角)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해가 뜨기 직전 수성이 맨 아래 그 위로 금성, 토성, 목성, 화성이 나란히 뜨고 화성 위 살짝 오른쪽에 달이 뜬 것이었다. 전설시대로 알려진 삼황오제의 시대는 이순지의 『천문류초』를 통해 전설시대가 아니라 기록의 시대였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 기록으로 우리의 천문 기록 역사는 2020년 더하기 2470년 즉 올해부터 4490년 전이 된다. BC2333년 보다 더 이전이 되니 고조선보다 더 오래된 천문역사기록이다.

2022년에 오행성이 다시 모인다고 하니, 삼황오제 가운데 한 분인 전욱 고양씨와 같은 별자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이다. 하늘을 보고 별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 시대 밀레토스의 철학자 탈레스도 하늘의 별들을 보다가 눈앞의 웅덩이에 빠지고, 이를 지켜본 트라키아의 하녀는 제 앞길의 물웅덩이도 못 보면서 하늘의 별을 보는 이 철학자를 비웃는다. 『장자』「소요유」편에서는 대붕이 하늘 높이 9만리를 올라 저 멀리 남쪽 바다를 향해 나는 것을 보고, 메추라기가 비웃는 이야기가 나온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그가 인간일 때부터 항상 초자연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해왔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보다 더 이전부터 하늘과 별과 우주를 인간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천인감응(天人感應)을 믿었고, 그래서 천명(天命) 사상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대의 현상학자 H. 롬바흐는 "사람들은 결코 '미개' 했었던 적이 없었다." 고 한다.

서양의 역사에서 제기된 모든 철학적 문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이미 다 나타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B. 러셀이 '서양철학 2500년의 역사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각주에 불과하다' 고 한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W. 바이셰델은 "철학의 모든 문제는 신화의 힘이 퇴색하던 시대에 신화가 알고 있던 바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고 한다. 이것은 변역(變易)과 불역(不易)을 말하는 역학(易學)에서 불역적 요소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매일 아침이면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지만 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같으면서 다른 태양인 것이다. 우리는 새롭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같다는 말에 현혹되어서도 안 된다.

어둠 속에 망각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본래성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나는 우리 학생들이 자신 안에서 어둠 속에 잠들어 있는 본래성에도 눈을 뜨고 아끼고 보살피며 살라고 하고싶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불성(佛性)이라고 한다. 유가에서는 그것을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하늘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난 존재자라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존재이유를 물어야만 하는 존재자인 것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 가꾸어 가길 바란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만이 아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더 확장해서 인류 전체, 지구 전체, 우주에로 확장하길 바란다. 고인돌에 새겨진 별자리들, 고구려 고분벽화에 새겨진 사방과 천장에 그린 그림들은 선사시대부터 고대 한국인들이 먹고살기에만 급급해하며 산 존재자들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들이 그들의 무덤에 푸른 용인 청룡(靑龍), 하얀 호랑이인 백호(白虎), 붉은 봉황인 주작(朱雀), 거북과 뱀이 뭉친 모습인 현무(玄武)를 동서남북에 그린 사신도(四神圖)는 그들이 죽어서도 함께 산다고 믿는 존재자들을 그린 것이다. 그들은 죽어서 하늘의 별이 되어 그 별들과 함께 사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한국의 고대인들은 하늘과 이 우주 안에서 그것들과 연결되어 함께 살며, 죽어서도 그것들과 함께 사는 천손(天孫)으로서 한 우주 안에서 '하나의 공생(共生)-존재자들' 이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십자말풀이에 응모해주신 분으로 수정해주세요!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8nahyuuuny@hufs.ac. 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나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35년의 베테랑 외교관, 서동구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대사를 만나다.

서동구(사회 · 정외 75)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대사(이하 서 대사)는 타지에서 자국민 보호와 국익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서 대사는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 공사△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대사△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의 직책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35년 간 공직생활을 수행한 현직 외교 전문가 서 대사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자.

Q1. 대학 시절 서 대사는 어떤 학생이었고 외교관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학년 땐 공부를 하기보단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학교 앞 주점을 순례하고 철학적 논쟁을 즐기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땐 우리학교에 창설된 '타임스지 연구반' 에 가입했습니다. 미국 주간지인 타임스지를 공부하고 내용을 요약해 강의하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타임스지 연구반 반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주한미군방송(AFKN)을 청취하는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이처럼 대학 시절, 영어에 빠져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일상에서 국제관계에 대한 관심이 외교관이란 꿈으로 이어졌습니다.

Q2.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것이 외교관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됐나요?

제가 재학 중이던 197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학교는 이미 어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연구 분야에서도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저도 국제적 마인드를 갖게 됐습니다.

외교관으로서 △뉴욕△시카고△워싱턴 D.C.△토론토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 · 후배를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다양한 애환을 나누며 타지 생활의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졸업하고도 '외대인' 으로서의 유대감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Q3. 외교관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2001년 발생한 9 · 11테러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사건 당일, 전 시카고 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시어스 타워(Sears Tower)와 같은 대부분의 고층빌딩에 대피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근무하던 총영사관 빌딩(NBC Tower)도 봉쇄돼 사무실에 접근하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서동구 대사
(출처: 주파키스탄대한민국대사관 공식 SNS 계정)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붕괴돼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켜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제테러리즘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9.11 테러와 관련된 각종 기사나 논문을 수집했습니다.

Q4.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의 이스라엘 입국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외교관 생활이 겉으론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긴장을 풀 수 없는 때가 더 많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사태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2월 22일, 이스라엘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간 우리나라 관광객 중 다수가 귀국 후 확진자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코로나 청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극도로 긴장해 전면적인 방역과 한국인에 대한 격리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일 한국발(發) 이스라엘행(行) 비행편을 탑승한 우리나라 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2시간 만에 모두 회항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사로서 이스라엘 고위당국자에게 해당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국민에겐 기내방송을 통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고위당국자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2월 24일, 성지순례 여행 중이던 우리나라 국민을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국적기 특별기편으로 입국시켰습니다. 3일간의 비상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직원과 며칠 밤을 새우고 사무실과 공항을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Q5.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주이스라엘대한민국대사관 대사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퇴임 후엔 미국과 파키스탄 등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서아시아(인도-파키스탄) 전략적 안정성△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약 35년간의 공직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후배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전해주고 싶습니다.

Q6.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길 꿈꾸는 우리 학교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후배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실력배양과 혁신마인드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실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학 실력을 바탕으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현재 △국내 사회 변화△국제 체제 변동△한반도 상황 전환△4차 산업혁명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란 말이 있듯 실력이 있어야만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성지에서 혁신성지로 변화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후츠파(chutzpah)와 다브카(davca) 정신이 혁신의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츠파는 '기존개념과 기존권위에 대한 당돌한 도전' 을, 다브카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를 의미합니다. 자신감이 민족정신에 내재돼 있는 이스라엘인에게 실패는 혁신의 바탕입니다. 저는 수많은 이스라엘인을 만나며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혁신을 일으키는 비결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학교 후배들 또한 실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당돌하게 도전하길 기원합니다.

김연수 기자 100yeonsue@hufs.ac.kr